

研究論文

# KS규격으로 완성된 '우리말 표준 색이름 체계'에 대한 일고찰\*

이 은 섭\*\*

I. 서론	IV. 결론
II. 표준화된 기본색이름과 계통색이름	<참고문헌>
III. 색채어 자질의 표시 방식	<국문요약>

## I. 서론

본고는 현대 국어의 색채명 어휘가 어떻게 제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국어학적으로 어떠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형태·어휘론적 소고이다. 한국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에서 주도하여 온 우리말 표준 색채명 어휘 체계의 확립 작업은 2003년 계통색이름의 체계를 전면 개정한 이후 줄곧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5년도에 표준 관용색이름을 개정함으로써 국가 규격화되었다.1) 우리는 개편된 색채명의 체계에 대하여, 특히 국어의 기본색이름(기본 색채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9-AS0100).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국어 문법론 전공(taneki@snu.ac.kr).

1)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 「병아리색, 키위색이 표준 색이름으로 우리말 표준 색이름 체계 KS 규격으로 완성」,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실(2005)를 참조할 것.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색채의 명칭에 대하여 색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지만, 위 보도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원전의 '색이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한편 '관용색이름'은 '모카색'이나 '병아리색' 등과 같이 어떠한 대상이 지니고 있는 색상에 빗대어 색채를 표현하는 색채명이다. 이는 개념적으로 환유 작용을 거

명)과 계통색이름(계통 색채명)을 중심으로 그 특징적인 면을 살피도록 하겠다.

## II. 표준화된 기본색이름과 계통색이름

### 1. 국어 계통색이름의 선정 현황

기본 색채명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의 색채명을 계통적으로 분류, 표준화한 국어의 계통색이름은 다음 (1)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1) 계통색이름 : 모든 색을 계통적으로 분류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색이름으로 기본색이름과 수식 형용사의 체계적인 결합에 의해 색을 기술. 예) 빨강, 빨간 주황, 진한 빨강

(1)에서는 계통색이름의 정의와 형성의 원리를 동시에 밝히고 있다. 예를 든 기본색이름 ‘빨강’은 단일 색채명, ‘빨간 주황’은 계통적 연관성을 시사하는 색채명, 그리고 ‘진한 빨강’은 색상에 채도 표현이 결합한 색채명이다. (1)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색상으로 간주되는 색채에서부터 색채 스펙트럼 상의 연관 관계, 그리고 명도나 채도 등의 색채 의미 자질까지를 함께 고려하여 색채명을 종합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관련 기관과 연구 단체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빨간 주황’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어 색채 형용사 어간 ‘빨강’의 관형사형 ‘빨간’과 한자어 색채 명사 ‘주황’의 통합 관계가 그대로 색채명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색채명이 색채 스펙트럼상에서 붉은색과 노란색의 간색으로서, 보다 붉은 쪽에 가까운 간색의 정도를 계통적으로 표현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어의 계통색이름을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하양, 회색, 검정’의 기본색이름으로 세분하고, 각각의 계통에서 다양한 색채명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 그 표를 제시하여 보자.<sup>2)</sup>

---

친 명칭이 활성화 과정을 거쳐 언중들에게 두루 통용되고 있는 색채명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우리말 계통색이름 (202개)

기본 색이름	계통색이름	기본 색이름	계통색이름	기본 색이름	계통색이름	기본 색이름	계통색이름	기본 색이름	계통색이름
빨강	선명한 빨강 밝은 빨강 진(한) 빨강 흐린 빨강 탁한 빨강 어두운 빨강 회적색 어두운 회적색 검은 빨강	연두	선명한 연두 밝은 연두 진한 연두 연한 연두 흐린 연두 탁한 연두 노란 연두 선명한 노란연두 밝은 노란연두 진한 노란연두 연한 노란연두 흐린 노란연두 탁한 노란연두 녹연두 선명한 녹연두 밝은 녹연두 연한 녹연두 흐린 녹연두 탁한 녹연두 흰 연두 회연두 밝은 회연두	파랑	선명한 파랑 밝은 파랑 진(한) 파랑 연(한) 파랑 흐린 파랑 탁한 파랑 어두운 파랑 흰 파랑 회청색 밝은 회청색 어두운 회청색 검은 파랑	자주	선명한 자주 밝은 자주 진한 자주 연한 자주 흐린 자주 탁한 자주 어두운 자주 빨간 자주(적자색) 진한 적자색 탁한 적자색 어두운 적자색 회자주 어두운 회자주 검은 자주	하양	노란 하양 초록빛 하양 파란 하양 보랏빛 하양 분홍빛 하양
주황	선명한 주황 밝은 주황 진(한) 주황 흐린 주황 탁한 주황 빨간 주황 선명한 빨간주황 밝은 빨간주황 탁한 빨간주황 노란 주황 선명한 노란주황 밝은 노란주황	초록	선명한 초록 밝은 초록 진(한) 초록 연(한) 초록 흐린 초록 탁한 초록 어두운 초록 흰 초록 회록색 밝은 회록색 어두운 회록색 검은 초록	남색	밝은 남색 흐린 남색 어두운 남색 회남색 검은 남색	분홍	진(한) 분홍 연(한) 분홍 흐린 분홍 탁한 분홍 노란 분홍 진한 노란분홍 연한 노란분홍 흐린 노란분홍 흰 분홍 회분홍 밝은 회분홍 자줏빛 분홍 진한 자줏빛 분홍	회색	빨간 회색(적회색) 어두운 적회색 노란 회색(황회색) 녹회색 밝은 녹회색 어두운 녹회색 파란 회색(청회색) 밝은 청회색 어두운 청회색 보랏빛 회색 보랏빛 회색

2) <표 1>은 기술표준원 화학용표준과 앞의 글의 것을 논의의 편의상 가감 없이 가져온 것이다.

	진한 노란주황 연한 노란주황 흐린 노란주황 탁한 노란주황						연한 자줏빛 분홍 흐린 자줏빛 분홍 탁한 자줏빛 분홍		밝은 보랏빛 회색 어두운 보랏빛 회색 분홍빛 회색 갈회색 어두운 갈회색
노 랑	선명한 노랑 진(한) 노랑 연(한) 노랑 흐린 노랑 흰 노랑 회황색 밝은 회황색	청 록	밝은 청록 진한 청록 연한 청록 흐린 청록 탁한 청록 어두운 청록 흰 청록 회청록 밝은 회청록 어두운 회청록 검은 청록	보 라	선명한 보라 밝은 보라 진(한) 보라 연(한) 보라 흐린 보라 탁한 보라 어두운 보라 흰보라 회보라 밝은 회보라 어두운 회보라 검은 보라	갈 색	밝은 갈색 진한 갈색 연한 갈색 흐린 갈색 탁한 갈색 어두운 갈색 빨간 갈색(적갈색) 밝은 적갈색 진한 적갈색 흐린 적갈색 탁한 적갈색 어두운 적갈색 노란 갈색(황갈색) 밝은 황갈색 연한 황갈색 흐린 황갈색 탁한 황갈색 녹갈색 밝은 녹갈색 흐린 녹갈색 탁한 녹갈색 어두운 녹갈색 회갈색 어두운 회갈색 검은 갈색(흑갈색)	검 정	빨간 검정 초록빛 검정 파란 검정 보랏빛 검정 갈흑색

이제 위 표를 바탕으로 개정된 계통색이름들의 특징을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 2. 기본 오색 중심의 색채명 설정

국어의 색채명은 전반적으로 오방색, 혹은 기본 오색이라고 지칭되는 검정, 하양, 빨강, 노랑, 파랑의 고유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표 1>에서 계통의 대표색으로 지칭된 기본색이름 중에 이들 다섯 가지 색채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들의 계통을 보다 세분하여 표시한 다양한 계통색이름의 양상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 ㄱ. 선명한 **빨간**주황, 밝은 **노란**주황, **흰**보라

ㄴ. **흰** 초록, **검은** 초록, **파란** 하양, **빨간** 검정, **노란** 연두

(2)는 고유어의 기본색이름이 계통색이름의 형성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2ㄱ)은 기본 오색 형용사의 활용형이 후행하는 색채 명사 '주황', '보라'에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형성한 예들이다. 이번에 확정된 우리말 계통색이름에서 '색채 관형사형+색채 명사'의 형식을 갖춘 색채어 합성 명사들은 기본색 중에서 '빨간, 노란, 흰'의 세 관형사형만이 단어 형성에 참여하고 있다.<sup>3)</sup>

(2ㄴ)은 고유어 중에서의 기본색이름이 형용사 활용의 관형어로 실현되어 후행 색채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어형들이다. 역시 형용사로서 관형사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섯 기본색이름만이 이러한 구성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의 예들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단어의 자격이 아니라 통사적 구 구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구성들은 김창섭(1996)에서의 '구의 공시적 단어화'나 송원용(2002)의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 등의 설명에서 언급된 '만남의 광장', '돌아오지 않는 다리' 등과 동일한 예들이다.<sup>4)</sup> 이제 다음의 예들을 보자.

3) 형용사로 실현되지 못하는 기본색 이외의 색상명은 관형사형과 같은 형식을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구성에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 색채어의 부류적 특징에 기인하여 형성된 복합어의 독특한 양상 중 하나의 예라고 하겠다.

4) 김창섭, 『국어의 단어 형성과 단어 구조의 연구』(태학사, 1996), 25~26쪽; 송원용, 「국어 어휘부의 단어 형성 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2), 62~63쪽에서 다루어진 예들이 일반적인 화자들에 의해 형성된 후 그것이 '활성화'(시정곤, 「국어의 어휘부 사전에 대한 연구」, 『언어연구』 17권 1호(한국현대언어학회, 2001), 163~184쪽; 송원용 위의 논문 참조) 과정을 거쳐 통용되고 있는 것들임에 비해, 이번에 제정된 색채명들은 필요에 의해 제도적으로 규정된 것들이라

- (3) ㄱ. 적자색, 청회색, 황갈색 등  
 ㄴ. 검은 자주 - \*흑자주, 흰 연두 - \*백연두

(3ㄱ)은 한자어 계통색 이름들이다. 이들은 모두 [Y[X색]]의 형태 구성을 띠고 있다. 즉, 기본 오색에 속하는 한자어 ‘적-, 청-, 황-’이 접두사적 기능을 수행하여 ‘자색, 회색, 갈색’ 따위의 한자어 색채어와 결합한 형식들이다. 이들의 형태 구조를 살필 때, 우리는 위의 기술과는 다른 방식을 가정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적-, 청-, 황-’이 ‘-자, -회, -갈’과 결합하여 ‘적자-, 청회-, 황갈-’을 형성하고, 이들이 다시 ‘-색’과 결합하여 (3ㄱ)의 복합어를 형성하는 [[YX]색]의 형태 구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용되기 어렵다.

일단 단어 형성의 첫 번째 단계의 출력형인 ‘적자-, 청회-, 황갈-’이 어근으로서의 완전한 지위를 갖는다고는 단언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점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 (4) ㄱ. 나는 자주색 중에서 적자색이/\*적자가 가장 마음에 든다.  
 ㄴ. 소박한 운치를 엿볼 수 있는 청회색/\*청회의 자기.  
 ㄷ. 무덤의 황갈색/\*황갈 흙더미에서 날리는 먼지가 세월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ㄹ. 주황과 청록은 주황색과 청록색의 준말이다.

이들이 ‘색’이나 ‘빛’과 합성어를 형성한 예와,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문장에 실현된 예를 (4ㄱ)에서 (4ㄷ)까지의 양상으로 살펴본다면, 이들의 자립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sup>5)</sup> 한편 ‘주황, 청록’ 등의 형태들과 비교한다면 그 형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단계에서는 이들이 자립성을 지닌 ‘주황, 황록’과 동일하게 단어의 자격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sup>6)</sup>

는 차이가 존재한다.

- 5) ‘색’이나 ‘빛’을 후행 어근으로 하여 합성된 명사들에 대해서는 이은섭, 「‘색’과 ‘빛’ 계열 합성 명사의 형태·의미론적 고찰」, 『인문논총』, 제54집(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5), 275~308쪽을 참조할 것.  
 6)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는 ‘주황’이 ‘주황색’의, ‘청록’은 ‘청록색’의 동의어로, 워드 프로세서 ‘할 글’의 한글사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중국어사전에는 각각 ‘주황빛’의 준말과 ‘청록색’의 동의어로 기술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주황’과 ‘주황색’, ‘청록’과 ‘청록색’이 모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의미 기술 역시 동일하다.

이는 이들이 완전히 적격하게 실현된 (4ㄷ)과 그렇지 못한 (4ㄱ) 등의 양상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설혹, 이들을 임시어의 형태들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황, 청록’과의 ‘일음절 색채 한자어+일음절 색채 한자어’적인 형식적 차원에서의 유사함에 지나치게 정도된 견해일 것이다.

[[YX]색]의 구성이라는 분석은 의미적 차원에서도 수용될 수 없다. (3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들의 의미적 중심이 Y와 X 중에서 X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3ㄱ)은 ‘자색 중에서 붉은색에 가까운 자색’, ‘회색이 청색을 띠는 경우’, ‘갈색 중에서 노란색에 가까운 갈색’을 의미하는 단어들이다. 그러므로 ‘자, 회, 갈’ 등이 우선 ‘색’과 결합하여, ‘자색, 회색, 갈색’의 단어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접두사적 성격의 ‘적, 청, 황’과 결합하여 간색이나 계통색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sup>7)</sup>

한편 (3ㄴ)의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색에 해당하는 특정 고유어 ‘검, 회’ 성분만이 후행하는 한자어 단어와 통합하여 계통색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사용되도록 규정된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러한 구적 형식의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검, 회’와 의미상 대응하는 한자어 ‘흑(黑)’과 ‘백(白)’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를 국어 색채어의 특징 중 한자어가 참여하는 색채어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제한적 양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즉 한자어는 명도나 채도를 나타내는 접두사를 제외하고는 고유어 색채어 어근에 결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자.

- (5) ㄱ. 진빨강, 진노랑, 진파랑 - 연노랑, 연파랑
- ㄴ. 흰보라, 검은보라 - \*백보라, \*흑보라

(5ㄱ)에서는 채도 표시의 한자어 접두사 ‘진-’(津), ‘연-’(軟)이 ‘검정’과 ‘하양’을 제외한 기본 오색의 고유어 색채어와 결합하고 있다. 이들 접두사는 그 의미가 정도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접두사는 색채 스펙트럼상의 극단을

---

7) 위의 예에서 ‘적, 청, 황’은 일반적인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후행하는 성분의 범주적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며, 어근의 의미를 한정,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일음절 한자어 어근이 아닌 접두사로 파악하고자 한다.

표시하는 ‘검정’과 ‘하양’에 결합하지 못한다. 즉 이는 무채색 계열의 두 색이 채도 표시의 접두사와는 원리적으로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5ㄴ)의 경우는 기본색이름 중에서 고유어 색이름인 ‘보라’가 고유어의 색채어와는 결합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한자어 색채어와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국어 색채어 중에서는 기본 오색에 해당하는 것들만이 명사와 형용사의 두 가지 품사로 실현될 수 있는데, 특히 형용사가 활용하여 관형어적인 용법을 보일 경우(검은, 흰, 빨간, 파란, 노란), 고유어이건 한자어이건 상관없이 통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당 한자어들은 후행 어근이 반드시 한자어이어야 한다(청록색, 황갈색, 적자색 등). 이때에도 역시 ‘흑’과 ‘백’은 거의 출현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흑갈색’ 정도의 예만 발견된다.

### III. 색채어 자질의 표시 방식

이제 색채어의 기본적인 세 가지 자질들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특히하게도 표준으로 규정한 색채어에는 형태론적으로 고유어 접사를 통해 파생된 어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어는 일반적으로 접사 파생을 통하여 미묘한 어감을 표현하고 있는데,<sup>8)</sup> 개정된 색채어에서는 한자어 접두사가 포함된 어형을 제외하고는 고유어 접사 파생 어형들이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규정된 색채어들이 명사인 색이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sup>9)</sup>

이번에 KS규격으로 제정된 색채어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색채어 관련 자질

8) 색채어 파생 접미사에 대한 선행 연구 중에서는 기존의 연구 업적 중에서 가장 많은 접미사를 제시한 정재윤, 「우리말 색채어의 낱말밭」, 『국어교육』 63(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8), 105~131쪽; 강재원, 「우리말 색채어 어휘분화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5)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자는 색채어의 단어 형성의 차원에 주목하여, 색채어의 형태론적 양상을 단일어, 파생어, 복합어, 합성어로 세분하고 있다.

9) 실제적으로 색이름 파생 명사 가운데 고유어 접사가 결합하여 색채의 자질을 표현하는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새파랑, \*새빨강 등은 발견되지 않는 어형이며, ‘노르스름, 불그스레’ 등은 어근의 자격을 지닐 뿐 명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정, 하양, 빨강, 노랑, 파랑’ 등에서 분석할 수 있는 ‘-양/영’의 경우는 명사 파생의 기능을 하는 접미사이지만, 이들은 실제로 색채의 의미 자질에 관여하는 접사들은 아니다.



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몇 차례 언급했듯이 색채어는 그 의미 자질로 색상과 명도, 채도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이 색채어 내에서 실현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 본고에서는 KS규격으로 선정된 계통색이름들이 어떻게 색상, 명도, 채도를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어학적 차원에서만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색상 자질, 명도 자질, 채도 자질의 실현 양상을 구분하여 논의하겠다.

### 1. 색상 자질의 표시

이번에 확정된 우리말 계통색이름은 색상 자질의 표시를 다음과 같은 관형사형과 명사들로 구현하고 있다.<sup>10)</sup>

(6) 색상 자질의 관형 표현 : 검은, 흰, 빨간, 노란, 파란, 분홍빛(하양), 보랏빛  
(회색) 자줏빛(분홍)

(6)은 우리말 계통색이름의 다양한 색상 자질들이 기본 오색의 관형형과 합성 명사 'X-빛' 표현을 이용하여 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중 기본 오색의 관형사형은 자신들 사이에 형성되는 색상간의 관련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7) ㄱ. 빨강-빨간 주황-노란 주황-노랑  
    ㄴ. 노랑-노란 연두-녹연두-초록

(7)의 예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색상을 표시할 때, 그 색상이 어떠한 계통색에 가까운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고유어 기본 오색 형용사의 활용형이 관형어로 사용된 색채명들이다. (7ㄱ)은 기본색과 기본색 사이의 색상 차원의 관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인데, '빨강'과 '노랑' 사이의 색상 스펙트럼과 간색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7ㄴ) 역시 '노랑'과 '초록' 사이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0) 합성 명사 'X-빛'이 관형어로 기능하는 예는 (6)에 나타난 예만 보이므로 본고에서는 주로 기본 오색 형용사의 관형어적 쓰임만을 주목하기로 한다. '빛' 계열 합성 명사에 대해서는 이은섭, 앞의 논문, 299~303쪽을 참조할 것.

이 두 예는 모두, 형용사의 관형사형이 후행하는 색상의 계통을 표시함으로써 기본색과 기본색 사이에 존재하는 색상적 차원의 연쇄를 표시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러한 간색 관계가 색채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사항을 살펴보자.

- (8) 가. 파랑-검은 파랑
- 나. 하양-파란 하양
- 다. 보라-흰보라, 분홍-흰 분홍

(8가)에서 (8다)까지는 모두 기본색이름에 색채어 형용사의 관형사형이 선행하여, 각각의 기본색이 연속성 상에서 상호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물론 이들은 (7)과 같은 분명한 스펙트럼으로 표현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의 색상이 여타의 색상과 아무런 연관성을 맺지 못하는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관련 색상과 계통색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위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8다)에서는 형용사 ‘희.’의 관형사형 ‘흰’이 어기의 자격으로 합성어를 형성하는 예(흰보라)와 구적 성격의 색채명을 형성하는 예(흰 분홍)가 동시에 발견된다. 현 시점에서는 이를 표기상의 엄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두 형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렵다.<sup>11)</sup>

## 2. 명도 자질의 표시

명도는 사전적인 의미로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명도와 채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함이 없이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색채어 기술에 이용하여 왔다.<sup>12)</sup> 사실 명도와 채도는 분명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빛

---

11) 이러한 예는 다른 색이름의 경우에도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자면 ‘노란 연두/노란연두, 노란 분홍/노란분홍, 노란 주황/노란주황, 빨간 주황/빨간주황’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색이름의 표기 양상에는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된다. 곧 지칭되는 색이름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노란연두, 노란분홍, 노란주황, 빨간주황’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단독형인 경우에는 ‘노란 연두, 노란 분홍, 노란 주황, 빨간 주황’의 형식으로 표기되고 있다.

의 속성이나, 색상 자체의 성격, 그리고 색상의 순도와 혼탁 등의 물리적인 원인들이 복잡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모호하다. 우선 명도 자질을 표시하는 성분들을 살펴보자.

(9) 명도 자질의 관형어 표현 : 밝은, 어두운

KS규격으로 선정된 계통색이름들에 나타난 명도 자질의 표시 방식은 (9)에서 드러나듯이 '밝-'과 '어둡-' 두 개의 형용사를 활용시킨 관형사형으로 후행하는 색채어의 자질을 명시하는 것이다. 명도는 계통색 관계에서 어느 것이 밝은 정도가 더한가의 문제이므로 두 개의 관형사형들은 각각 높은 명도와 낮은 명도를 지시할 것이다.<sup>13)</sup>

- (10) 가. 높은 명도 : 밝은
- 나. 낮은 명도 : 어두운

이제 (10)을 바탕으로 각각의 명도 자질 표시 관형어가 실현된 계통색이름들을 살펴보자.

- (11) 가. 밝은 : 밝은 빨강, 밝은 주황, 밝은 연두, 밝은 초록, 밝은 청록, 밝은 파랑, 밝은 남색, 밝은 보라, 밝은 자주, 밝은 갈색, (\*밝은 노랑, \*밝은 분홍/밝은 회분홍, \*밝은 하양, 밝은 녹회색, 밝은 청회색, 밝은 보랏빛 회색, \*밝은 검정)
- 나. 어두운 : 어두운 빨강, 어두운 초록, 어두운 청록, 어두운 파랑, 어두운 남색, 어두운 보라, 어두운 자주, 어두운 갈색, 어두운 회색(어두운 적회색, \*어두운 주황, \*어두운 노랑, \*어두운 연두, 어두운 회보라, 어두운

---

12) 선행 연구 업적 중에서는 비교적 체계적이고 정연한 논리를 확립하여 색채어의 표색 체계에 대해 고찰을 시도한 임훈, 「한국어 색채어의 표색체계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10(국어교육학회, 2000), 429~458쪽이 주목을 요한다.

13) 이론적으로는 색채는 빛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물리적인 스펙트럼이므로, 명도의 차원에서 비교적 높은 명도와 비교적 낮은 명도의 층위를 더 세밀하게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세부적인 명세를 담당하는 언어 형식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기는 매우 어렵다.

적자색, 어두운 회자주, \*어두운 분홍, 어두운 적갈색, 어두운 녹갈색,  
어두운 회갈색, \*어두운 하양, 어두운 적회색, 어두운 녹회색, 어두운  
청회색, 어두운 보랏빛 회색, 어두운 갈회색, \*어두운 검정)

(11ㄱ)과 (11ㄴ)은 각각 명도가 높은 색이름과 명도가 낮은 색이름을 구별하여 놓은 것이다.<sup>14)</sup> 명도의 높낮이 정도에 따른 양상은 몇 가지의 특성을 보인다.

첫째, 하나의 기본 색채명이 높은 명도와 낮은 명도의 색상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 이는 ‘밝은’과 ‘어두운’이 하나의 기본 색이름에 모두 나타나는 경우들로서, ‘빨강,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갈색’의 8개 색채명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밝은’과 통합 관계를 형성하여 높은 명도를 표시하는 형식만이 제시된 색상은 일단 ‘주황, 연두’ 뿐이다. 그러나 기본색이름 중에서 ‘하양’과 ‘노랑’과 ‘분홍’도 역시 높은 명도의 색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양’은 무채색이지만, 모든 색상 중에서 가장 밝은 색이므로 명도가 높다는 사실에 이의가 제기될 수 없다. 한편, 우리가 명도의 자질을 표시하는 기제로 관형사형 ‘밝은’만을 제시하였으나, 색채 형용사 ‘회’의 관형사형 ‘흰’의 수식을 받는 기본색이름도 ‘하양’의 고명도적 속성을 고려한다면, 높은 명도가 표시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흰’의 수식을 받는 색이름 ‘노랑’과 ‘분홍’도 높은 명도의 색상이며, ‘흰 X’의 형식을 통해서도 명도가 높은 색상이 명명될 수 있음을 추가로 지적할 수 있다.<sup>15)</sup>

셋째, ‘어두운’만이 실현되어 낮은 명도의 색상으로만 표시되는 기본 색이름은 ‘회색’ 하나뿐이다. 그렇지만, 역시 둘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외에도 ‘검정’을 추

14) 사실 이러한 구분에서도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존재한다. 관용적으로 ‘홍색’과 ‘연지색’으로 지칭되는 두 개의 ‘밝은 빨강’은 민셀의 표색계에서 그 자질값이 각각 5R 5/14과 5R 5/12로 나타나 있어서 그 차이가 채도에 국한된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명도에 채도나 색상의 경우에만 차이를 갖는 계통색이 둘 다 높은 명도의 ‘밝은 빨강’으로 명명되어 있는 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15) 사실, ‘노랑’과 ‘분홍’만이 ‘흰’의 수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두 색상 이외에도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보라’ 등이 ‘흰·X’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밝은’과의 결합형도 지니고 있으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밝은’과의 결합형이 보이지 않는 ‘노랑’과 ‘분홍’으로서, 이들의 명도가 ‘밝은’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밝은’과 ‘흰’이 표시하는 명도의 정도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흰노랑, 흰분홍’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밝은’과의 통합 혹은 결합 관계를 통한 형식이 잉여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일단 여기서는 어느 쪽이 더 밝은 명도를 표시하는가의 문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한다.

가할 수 있다. '검정'은 그 자체로는 명도의 정도성을 상징할 수 없고, '하양'과 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가장 어두운 색상이므로 이를 관형사형 '검은'과 결합한 색이름들은 모두 낮은 명도를 지닌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들로는 '검은 빨강, 검은 초록, 검은 청록, 검은 남색, 검은 보라, 검은 자주, 검은 갈색'이 있다.

낮은 명도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하여야 할 색상이 존재하는데, 이는 바로 '회색'의 존재이다. 이 색상을 배합하기 위해서는 '검정'과 '하양'의 명도상 극단에서 있는 두 색상이 필요하다. 즉 가장 명도가 높은 색상과 낮은 색상의 직접적인 혼색이 곧 '회색'인 것이다. '회색'은 직접 '밝은'이나 '어두운'의 수식을 받지 못하고, '어두운 적회색, 밝은 녹회색' 등과 같이 간색 계열의 예에서만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아예, '밝은'이나 '어두운'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타나서 계통색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하양'이나 '검정'과는 다른 점이다. 일단 '회색'의 경우는 그것이 '밝은'의 수식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관여하는 간색의 색이름 앞에 '어두운'이 '밝은'보다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어두운 적회색, 어두운 녹회색, 어두운 청회색, 어두운 보랏빛 회색, 어두운 갈회색 대 밝은 녹회색, 밝은 보랏빛 회색)에 근거하여 낮은 명도를 표시하는 색상으로 간주한다.

넷째, 우리는 각각의 기본색들에 실현된 명도 자질의 양상을 아래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본색이 갖는 계통색들이 명도의 차이에 의해 어떻게 분화되어 명명되었는가를 고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밝은, 어두운, 흰, 검은' 등이 계통색상에 전부 실현된 기본색과 그렇지 못한 기본색을 구분한다면, 기본색 간에 존재하는 명도 차이를 이해할 수도 있다.

<표 2>를 참조한다면 우리는 계통색에서 다양한 명도의 양상을 지니고 있는 색상과 그렇지 못한 색상들을 구별할 수 있다. 일단 계통색 상에서 가장 다양한 명도를 지닌 색상은 네 관형형이 모두 색이름에 나타날 수 있는 '초록, 청록, 파랑, 보라'로 이들은 차가운 느낌의 청색과 따뜻한 느낌의 황색 계열과 두루 관련된 색채로 인식되어 왔다.<sup>16)</sup>

16) 온난의 개념이 우리에게 명도의 낮고 높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모종의 상관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도 있겠다.

<표 2> 기본색에서의 명도 자질 실현 양상

기본색 자 질	초 록	청 록	파 랑	보 라	빨 강	남 색	자 주	갈 색	연 두	주 황	노 랑	분 홍	회 색	검 정	하 양
밝은	○	○	○	○	○	○	○	○	○	○	○	○			
흰	○	○	○	○					○						
어두운	○	○	○	○	○	○	○	○							
검은	○	○	○	○	○	○	○	○							

한편 ‘빨강, 갈색, 남색, 자주’는 ‘검정’과는 통합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흰’과 통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낮은 명도의 색상을 지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또한 ‘밝은’과 ‘흰’만이 실현되는 연두, ‘밝은’만이 실현되는 ‘주황, 노랑, 분홍’은 높은 명도의 색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점은 명도 자질이 하나나 둘만이 실현된 색상의 성격이다. 주로 ‘밝은’과 ‘흰’이 실현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기본색 중에서 높은 명도의 색채가 낮은 명도의 색채보다 많이 존재한다는 점도 위 <표 2>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사항들을 통하여 우리는 규격화된 색채명들을 통해 명도 자질이 색채명에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12) 가. 명도 자질은 기본적으로 명암 관련의 형용사 활용형 ‘밝은’과 ‘어두운’으로 표시된다.
  - 나. 부수적으로 색채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색채 형용사 ‘검.’과 ‘회.’를 사용하여서 명도 자질을 표시할 수도 있다.
  - 다. ‘검정’과 ‘하양’의 간색인 색채명 ‘회색’을 이용하면, 비교적 낮은 명도 자질을 표시할 수 있다.
  - 르. 기본색 중에서는 높은 명도의 색상들이 낮은 명도의 색상들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

### 3. 채도 자질의 표시

채도도 명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계통 색상이 지니는 상대적으로 진하거나 열

은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sup>17)</sup> 이들은 <표 1>에서 다음의 관형형 성분들로 실현되고 있다.

(13) 채도 자질의 관형 표현 : 진(한), 연(한)

채도가 색상의 농담(濃淡)의 정도를 나타내어 주므로, 그러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이 관형사형으로 색채명에 결합하고 있다. 단지 명도 자질을 표시하는 방식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빛' 형식의 관형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의미적으로는 '검정', '하양'과 같은 색채어가 채도 자질을 표시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13)의 관형어들이 나타난 색채명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4) 가. 진(한) : 진(한) 빨강, 진(한) 주황, 진한 노란주황, 진(한) 노랑, 진한 연두, 진한 노란연두, 진(한) 초록, 진한 청록, 진(한) 파랑, 진(한) 보라, 진한 자주, 진한 적자색, 진(한) 분홍, 진한 노란분홍, 진한 자줏빛 분홍, 진한 갈색, 진한 적갈색(남색, 하양, 회색, 검정)
- 나. 연(한) : 연한 노란주황, 연(한) 노랑, 연한 연두, 연한 노란연두, 연한 녹색연두, 연(한) 초록, 연한 청록, 연(한) 파랑, 연(한) 보라, 연한 자주, 연(한) 분홍, 연한 노란분홍, 연한 자줏빛 분홍, 연한 갈색, 연한 황갈색(빨강, 남색, 하양, 회색, 검정)

(14)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형태론적인 차원에서 채도를 표시하는 관형 성분의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앞에서 색채명 설정에 있어서 색채 형용사의 관형사형들이 합성 명사를 구성하듯이 표기된 경우(진한 노란분홍 등)와 구적 성분을 구성하듯이 표기된 경우(빨간주황)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14)의 채도 표시를 위한 형태들의 양상에서도 이

17) 색채어 파생 접두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업적들이 대부분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연구들 중 특히 송철의,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태학사, 1992); 구본관, 「'푸르다'와 '파랗다」, 『한국문화』, 22(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8), 15-50쪽의 논의에서는 이들 접두사가 색상의 농담, 즉 채도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러한 비일관적인 양상을 찾을 수 있다.

- (15) 가. 진(한) 빨강, 진(한) 주황, 진(한) 노랑, 진(한) 초록, 진(한) 파랑, 진(한) 보라, 진(한) 분홍 ; 연(한) 노랑, 연(한) 초록, 연(한) 파랑, 연(한) 보라, 연(한) 분홍
- 나. 진한 노란주황, 진한 노란연두, 진한 적자색, 진한 노란분홍, 진한 자줏빛 분홍, 진한 적갈색 ; 연한 노란주황, 연한 노란연두, 연한 녹색연두, 연한 노란분홍, 연한 자줏빛 분홍, 연한 황갈색

(15 가)은 높은 채도와 낮은 채도를 나타내는 색채명이 접두사 파생어로도 구적 구성으로도 인식될 수 있도록 명명된 예들이다. 반드시 어느 한 쪽으로만 규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관성의 유지 차원에서는 파생어나 구적 구성의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편이 낫겠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일종의 규칙성이 존재한다. (15 나)의 예를 보면 발견되는 공통성이 있는데, 이는 바로 색채명 중 간색, 계통색을 나타내는 것들은 일관되게 구적 성분으로 채도를 표시한다는 점이다.

둘째, 채도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색채들이 존재한다. (14)의 괄호 안 색채명들이 그 예이다. 이들은 대체로 채도값의 정도를 추정하기 곤란하거나, 그 정도성을 상정할 수 없는 색채로 인식되는 것들이다. ‘검정’, ‘회색’, ‘하양’의 경우는 속성상 채도를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회색’의 경우는 짙음과 옅음의 정도성을 추정할 수 있을 법 하나, 역시 ‘검정’과 ‘하양’의 간색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채도가 높을수록 ‘검정’에, ‘채도’가 낮을수록 ‘하양’에 가깝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남색’과 ‘빨강’의 경우가 특이한데, 먼저 ‘남색’은 어두운 푸른색 계통의 색채로서 다음과 같은 예가 발견된다.<sup>18)</sup>

- (16) 가. …주로 밤색이나 짙은 남색이었다.
- 나. …청색과 조화되는 옥색이나, 연한 남색 등의 조화라 할 것이다.

(16)에서 알 수 있듯이 ‘남색’은 채도를 표시하는 형용사의 활용형과도 잘 어울

---

18) (16)과 (17)은 21세기 세종계획의 말뭉치 180만 어절(2004년까지)를 이용하여 추출한 용례들이다.



린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격화된 색채명에서는 그러한 언어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색채 본유적인 특징으로 인해 이러한 양상이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명명 작업에 엄밀성이 결여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단정을 내릴 수가 없다.

‘빨강’도 ‘남색’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 색채명은 높은 채도의 경우는 ‘진(한) 빨강’으로 명명되었지만, 대응되는 낮은 채도의 경우는 명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말뭉치 등의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례가 발견된다.

(17) 연한 빨강일수록 그 현상이 더한데...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규격화된 색채명에서 채도를 표시하는 방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8) 가. 채도 자질은 기본적으로 농담 관련의 형용사 활용형 ‘진한’과 ‘연한’으로 표시된다.

나. 채도 자질을 나타내는 성분들이 형태론적으로 ‘접사’와 ‘관형어’의 이원적인 면모를 보인다.

다. 간색을 나타내는 색채는 구적 형식이 색채명으로 채용되었다.

르. 기본색 중 ‘남색’과 ‘빨강’은 채도 자질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

#### IV. 결론

이번에 KS규격으로 상정된 색채명들을 살펴보면, 해당 색채의 자질을 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색채의 자질을 표시함에 있어서 먼셀(Albert H. Munsell)의 자질값을 비일관적으로 적용한 경우가 있으며, 둘째는 색상, 명도, 채도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속성을 지시하는 형용사의 활용형이 선행하여 형성된 색채명의 존재들이다. 본고는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논의를 맺고자 한다.

먼셀의 표색계에 표시된 색채의 세 가지 자질들은 현상적으로 엄밀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모호함이 규격화된 색채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관용적으로 ‘토마토색’으로 지칭되는 색채가 ‘빨강’으로, ‘선홍’으로 지칭되는 색채가 ‘밝은 빨강’으로, ‘루비색’으로 지칭되는 색채가 ‘진한 빨강’으로 명명되었다. 이들의 먼셀 표색계에서의 자질값은 각각 7.5R 4/12, 7.5R 5/16, 2.5R 3/10으로 주어져 있다. 동일한 계통의 색채가 색상값에서의 차이(빨강 대 밝은 빨강 대 진한 빨강), 명도값에서의 차이(빨강 대 밝은 빨강 대 진한 빨강), 채도값에서의 차이(빨강 대 밝은 빨강 대 진한 빨강)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밝은 빨강’이 명도 면에서 두드러져야 할 것이므로 ‘빨강’과 ‘진한 빨강’보다 명도값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채도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될 법한 ‘진한 빨강’의 경우에는 그 채도값이 ‘밝은 빨강’은 물론 ‘빨강’보다도 낮게 측정되어 있다. 아울러 동일 계통의 색채들이므로 색상값에서도 일관된 수치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진한 빨강’의 경우가 색상 면에서 가장 덜 전형적인 ‘빨강’임이 수치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앞에서 국어학적인 관점에서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결국 규격화된 색채명들에서 색채의 자질들을 표시하고 있는 성분들은 철저하게 색채의 자질값에 의거하여 색채명 형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질의 차이를 보이는 두 동일 계통색을 놓고, ‘이 색이 더 밝아 보이니까 이 색을 ‘밝은 빨강’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식의 임의적 명명 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고가 의도적으로 색상, 명도, 채도의 자질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 관형사형 성분이 있는데, 이들이 곧 ‘탁한’, ‘선명한’, ‘호란’이다. ‘탁한’은 먼셀의 표색계에 비추어 본다면, 명도와 채도 자질이 동시에 연관된 속성을 표시한다. 문제는 ‘탁한’이 의미하는 색채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는 형용사 ‘탁하’를 ‘(액체, 공기 등이) 잡물질과 섞여 있어서 순수하지 않고 흐리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탁한’은 적어도 순수한 하나의 색채가 이질적인 색채의 ‘간섭(?)’으로 인해 그 색채가 지닌 독자성이 훼손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간색의 문제가 남는다. 각각의 색채라는 것이 완전히 독자적인 대상이 아니고 다른 색채와의 관련성을 필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의 극명한 예가 간색이기 때문이다. 즉 개념적으로

는 '노랑'과 '빨강'의 간색인 '주황'이 '탁한 노랑'이나 '탁한 빨강'으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념상으로도, 색채학의 관점에서도 수용될 수 없다.

'선명한'은 보다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선명하'는 같은 사전에서 '(어떤 대상이) 뚜렷하여 분명히 알 수 있거나, 느껴지는 상태에 있다' 정도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뜻풀이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색채명에서의 '선명한'의 의미가 색상과 명도와 채도 중 무엇과 주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먼셀의 표색계에서는 '빨간 주황'은 10R 5/14로, '선명한 빨간주황'은 10R 5/16로 자질값을 표시하고 있다. 즉 '선명한'은 채도 자질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러한 양상이 '빨강'(5R 4/12)과 '선명한 빨강'(5R 4/14) 등의 다른 색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지각은 항상 더 짙은 색채를 보다 선명하다고 인식하는 것일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동일하게 채도를 나타내는 '진한 빨강'은 7.5R 3/12의 자질값을 갖는다. 자질값에 있어서 채도만이 아니라 색상과 명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한편, '흐린'의 '흐리-'는 같은 사전에서 '(사물의 색채나 밝기, 윤곽 등이) 뚜렷하지 못하고 희미하거나 어렴풋하다' 정도로 기술되고 있다. 먼셀의 표색계에 나타난 자질값을 보면 '파랑'이 7.5B 4/10이며, 흐린 파랑이 10B 8/4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하나 일치하는 자질값이 없다. 색상값과 명도값은 오히려 '흐린 파랑'이 '파랑'보다 더 높게 측정되어 있으며, 채도값의 경우에만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흐린'이 사전의 정의와는 달리 명도보다는 채도와 더 관련이 깊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색채명의 규격화 작업과 국어 현실간에 존재하는 필연적인 괴리 양상을 방증하는 예라 할 수 있다.

본고는 KS규격으로 발표된 색채명 중에서 기본색이름과 계통색이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색채명들이 국어학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물리적 대상인 색채가 어떠한 방식의 언어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논의의 주된 목적이었으나, 현재로서는 대상인 색채 그 자체와 이를 언어적으로 표상하기 위해 제정된 색채명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히 넓은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다.<sup>19)</sup> 이번에 이루어진 색채명의 표준

19) 익명의 논평자 선생님의 지적과 같이 본고는 능력의 한계로 인해 색채어 제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다루지는 못하였다. 가령, 기본색이름의 음성모음형 대응쌍인 '히영, 빨경, 누령, 퍼랑'

화 작업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색채명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색채 자질과 그 자질을 표상하는 언어 표현들을 보다 엄밀하게 대응시키는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상의 색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반 응용 분야에도 이러한 작업의 성과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재원, 「우리말 색채어 어휘분화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구본관, 「‘푸르다’와 ‘파랗다」. 『한국문화』 22,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8, 15~50쪽.
-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 「병아리색, 키위색이 표준 색이름으로: 우리말 표준 색이름 체계 KS규격으로 완성」.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실, 2005.
- 김창섭, 『국어의 단어 형성과 단어 구조의 연구』. 서울: 태학사, 1996.
- 송철의,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서울: 태학사, 1992.
- 송원용, 「국어 어휘부의 단어 형성 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 시정곤, 「국어의 어휘부 사전에 대한 연구」. 『언어연구』 17권 1호 한국현대언어학회, 2001, 163~184쪽.
- 엄훈, 「한국어 색채어의 표색체계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10, 국어교육학회, 2000, 429~458쪽.
- 운평어문연구소 편, 『금성관 국어대사전』 제2판. 서울: 금성출판사, 1996.
- 이만영, 『물체색 및 광원색이름 표준화연구(최종보고서)』. 주관기관: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이병기, 「색채명사의 발달」. 『형태론』 4권 2호, 2002, 279~299쪽.
- 이은섭, 「‘색’과 ‘빛’ 계열 합성 명사의 형태·의미론적 고찰」. 『인문논총』 제54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5, 275~308쪽.
- 정재윤, 「우리말 색채어의 낱말밭」. 『국어교육』 6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8, 105~131쪽.
- Munsell Color, *The Munsell Book of Color, Glossy collection*, Macbeth, 2002.

---

등이 규격화 과정에서 누락된 문제, 표준화 작업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표준 국어대사전』이 이용되지 않은 점, 각종 색채 자질에 사용된 관형사형들의 속성을 보다 엄밀하게 천착하지 못한 점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하겠다.

## 국 문 요약

본고는 현대 국어의 색채명 어휘 중 기본색과 계통색들이 어떻게 규격화되어 있으며, 이들이 국어학적으로 어떠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형태·어휘론적 소고이다.

형태론적으로 기본색이름은 단순 어기로, 계통색이름은 '관형어+명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N], [Adn [N]], 그리고 [Adn [Adn[N]]]의 형성 양상을 보인다.

어휘·의미론적으로 많은 관형어들이 해당 색채가 지니는 속성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색채어에서 각각 '색상', '채도', 그리고 '명도'의 표지 역할을 한다.

이들 KS 규격의 색이름들은 그 자체로 색채의 성격과 언어적 속성과의 대응 관계를 표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개념적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번에 이루어진 색채명의 표준화 작업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색채명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색채 자질과 그 자질을 표상하는 언어 표현들을 보다 엄밀하게 대응시키는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상의 색채를 한층 더 정확하고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투고일 : 2006. 1. 12.

● 심사완료일 : 2006. 3. 2.

● 주제어(keyword) : 기본색이름(basic color names), 계통색이름(relative color names), 색상(hue), 명도(luminosity), 채도(chroma)